



# coaching news letter

2023년 7,8월호 코칭뉴스레터  
제 52호

2023 / 7,8

# CONTENTS

04

코칭 국제대표의 생각

최고의 코치는 누구인가

07

코칭연구소 소식

7~8월 코칭 사역 중요한 NEWS

**GO THRIVE COACHING** Renewing Pastor Reviving Church

은 교회의 건강을 진단, 평가, 처방하고,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세워 코칭을 통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사역은 미국에서 1997년도에 시작하여 20년간 발전해오면서 지금까지 다섯 권의 관련 서적을 발행하였고, 1,000교회, 2,000명의 목회자, 그리고 1,500명의 평신도를 진단, 평가, 처방해왔습니다. GO Thrive Coaching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자 갱신(renewing), 교회 부흥(reviving), 지역사회 변화(refreshing)를 5대(5 generation)에 걸쳐서 실현하는 "3R5G시대 : 2030에 3,100명의 코치 세우기"를 열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역은 미국, 캐나다, 한국, C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유럽에서 목회 코칭, 교회리더 평신도 코칭, 건강진단처방 전략 코칭, 목표와 실행전략 코칭, 및 구역장 코칭 등으로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2

목회자 코칭 컨퍼런스

“세대를 넘어 코칭하라”

14

목회자 코칭 컨퍼런스

“코칭이 삶이 되고  
삶이 코칭이 되는 꿈을 꿉니다”

- 추승주 선교사

18

목회자 코칭 컨퍼런스

제1회 GO코칭 목회자 컨퍼런스 현장 속으로

22

목회자 코칭 컨퍼런스

목회자코칭컨퍼런스 평가 설문조사 결과

24

코칭 인터뷰

코칭.. 리더를 길러낸다

- 정희찬 선교사

30

북리포트 1,2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 엄태윤 목사

32

23년도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

1~2분기 목표 성취

36

광고

평신도 컨퍼런스

## 코칭 국제대표의 생각

# GO Coaching Column

## "최고의 코치는 누구인가"



지난 5월에 늘 다니던 대전 알라딘 헌책방에 들렀다. 하바드 대학 리더십 전도사인 빌 죠지(Bill George)의 “최고는 무엇이 다른가”(Discover your true north)라는 책을 구입하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손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에 빠졌다. 그러면서 과연 최고의 코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다. 3가지로 정리해 본다.

### 1.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

최고의 코치는 누구인가? 첫째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코칭을 하면 매일 혹은 매주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번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마련이다. 이것을 셀프 코칭(self-coaching)이라고 한다. GO 코칭을 하면 자신이 일 년간 성취할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goal and action strategy plan)을 만들게 된다. 이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안>에 따라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적(wisdom), 육적(stature), 영적(in favor with God)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in favor with men)(누가 2:52)에서 내 삶에 어떤 변화와 혁신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운 목표에 따라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일이 6개월 정도 지나면 누구든지 삶에 습관화가 형성된다.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 하셨다.(누가 22:39) 이렇게 습관이 형성되면 자신의 삶의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은 저절로 성취를 하게 된다. 문제는 그 때까지 자신의 삶을 셀프 컨트롤(self-control)하는 자제력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셀프 컨트롤(절제, 갈 5:24, 딤후 2:1,5,6,12)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된다. 코칭을 하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은 꼭 선배 코치(coach)를 만나게 되어 있다.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코치와 한 달간의 삶을 나누면서 자신 속에 들어 있는 잠재력은 흘러나오게 된다.(잠 20:5) 그러면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

## 2. 자신의 삶에 균형을 맞추는 사람

최고의 코치는 첫째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로 최고의 코치는 자신의 삶에 균형(balance)을 맞추는 사람이다. 삶의 균형이라 신자들이 교회생활(church)과 가정생활(family)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정하는 일이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 할 수 없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등한시 할 수 없다. 최고의 코치는 이 둘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교회생활에도 충실하고 가정생활에도 충실한 사람이다. 최고의 코치는 교회의 일만을 선택하거나 가정의 일만을 선택하거나 양자택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이 양자 사이에 교회생활 하나만 선택하였기에 균형 잡힌 삶을 만들지 못한 경험이 있다. 최고의 코치는 교회 생활의 시간과 일의 양을 정하고, 가정생활에서의 시간과 일의 양을 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늦었지만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 가기 위해 선택한 것이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내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아침(오전 8:00)과 저녁 시간(오후 6:00)을 지킨다. 또 하나는 아내와 함께 일주일에 5일간 매일 6,000보씩(한 달에 120,000보)을 걷는다. 또 하나는 매주 한번은 토요일에 한 시간 이상 가정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하다가 보니 나의 삶에 균형이 잡히고, 행복한 삶을 조금씩 맛보게 된다. 이렇게 최고의 코치는 교회와 가정에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다.

### 3. 타인의 삶에 행복과 평안을 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

첫 번째 최고의 코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 최고의 코치는 교회생활과 가정 생활에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다. 세 번째 최고의 코치는 누구인가? 자신의 삶에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행복과 평안을 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GO 코치들이다. 성경은 “자신의 삶을 돌아 볼 뿐더러 남의 삶도 돌아보아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 2:4)고 한다. 최고의 코치는 자신 만을 위한 셀프 코칭(self-coaching)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만 행복해지고 평안을 갖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을 지고 돌아보고, 삶에 행복과 평안을 갖도록 돕는 사람이다.

GO 코칭에서 강조하는 말이 “사해 바다와 같은 코치가 되지 말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코치”가 되라고 한다. 코칭을 받은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말이다. 코칭을 받은 제 1세대는 제2세대를 찾아 코칭을 하라는 말이다, 제2세대도 코칭을 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물줄기를 동료나 후배를 찾아 제3세대 코칭을 하라는 말이다. 제3세대도 코칭을 받고 끝나지 말고, 제4세대를 찾고, 그리고 제4세대도 코칭을 받고 끝나지 말고, 제5세대를 차차 코칭을 하라는 말이다. 그것이 받은 축복을 누리는 일이고, 전달하는 일이고, 계속해서 고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세대로 끝나지 않았고 아브라함 세대는 이삭을 낳아 이삭의 세대로 이어졌고, 이삭은 이삭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세대로 이어졌고, 야곱도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아 유다 시대로 이어졌고, 그리고 유다도 유다 세대로 끝나지 않고 베레스와 세라로 이어졌다.(마태 1:1-3) 최고의 코치는 자기만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코칭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최고의 코치가 가진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다. 최고의 코치는 자신을 돌아 보는 사람이다. 매일 매주 매달 한번씩 자기를 돌아 볼뿐만 아니라, 코치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사람이다. 최고의 코치는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에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러한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다. 그리고 최고의 코치는 자기만 코칭하는 셀프 코치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 타인을 코칭을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최고의 코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 2023년 7~8월

## 지역별 코칭 사역 중요한 NEWS

### 1. 제1회 목회자 코칭 컨퍼런스 개최

대전, 한샘교회(최홍운 목사)에서 2023년 6월27일(화) 오전 10:00-오후 4:00 <제1회 목회자 코칭 컨퍼런스>를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세대를 넘는 코칭(coaching beyond the generation)"으로 지난 4년간 제1세대 코칭을 넘어 제2세대, 제2세대 코칭을 넘어 제3세대 그리고 제3세대 코칭을 넘어 제4세대를 코칭한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세대를 넘는 코칭의 철학과 경험들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레이크레이션(김한진 전도사와 서창화 집사)으로 시작하여 첫 시간은 석정문 목사가 "세대를 넘어 코칭(딤후 2:2)"하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제1세 코칭의 주인인 바울이 제2세 디모데를 코칭하였고, 제2세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그리고 제3세대 충성된 사람들이 제4세대 또 다른 사람들을 코칭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두 번째 강의로 서울, 동대문구 동일교회(정현철 목사)에서 제4세대 코칭을 하여, 제1세대 정현철 목사가 제2세대 박종남 권사, 제2세대 박종남 권사가 제3세대 최필자 권사를 코칭한 이야기, 그리고 제3세대인 최필자가 권사가 항암을 치료받으면서도 끝까지 코칭하여 항암을 이겨낸 이야기 등, 그리고 제4세대 김영숙 집사를 끝까지 코칭한 실례를 들어 세대를 넘는 코칭의 중요성을 나누었고, 나아가서 교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조직 코칭(대상:목장과 교육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림> 제1회 GO 목회자 코칭 컨퍼런스 참여한 분들

또한 세 번째 강의로 해외 태국 선교사로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제3세대 코칭 중에 있는 추승주 선교사가 제1세대 코치로서 제2세대 코치인 싸이짜이 전도사, 제2세대인 싸이짜이 전도사가 제3세대인 나로조를 코칭한 사실을 예로 들어 "세대를 넘은 코칭"을 하라고 강조를 하였다.

오후에는 여전히 찬양과 레이크레이션으로 시작하여 제4세대 코칭을 하고 있는 부산 동성 교회 박준영 담임목사가 지난 4년간 제1세대 코치로서 제2세대 민향숙 권사를 코칭하였고, 제2세대 민향숙 권사가 제3세대 박수연 집사를 코칭하였고, 제3세대 박수연 집사가 제4세대 노현주 집사를 코칭한 이야기등 18명의 일대일 코칭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현재 교육부와 목장 사역을 코칭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제 2023년 10월 9일(월)에는 이렇게 코칭을 받아 변화와 혁신의 삶을 살고 있는 평신도 리더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신앙 경험과 코칭 사역의 비결들을 나누는 제1회 평신도 리더 코칭 컨퍼런스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서울과 인천, 전주, 대구, 하양, 부산 여러 지역에서 38명의 목회자와 사모들, 그리고 해외에서는 현재 한국을 방문중에 있는 말레이의 정희찬 박해경 부부 선교사, 태국의 추승주 선교사, 네팔에 이요한 선교사와 임영춘 선교사가 참석하였다.

## 2. 안성 동아시아 신학원 코칭 강의

안성에 위치한 C국의 복음 사역을 위해 사역자를 양성하는 동아시아 신학원(East Asian Theological School: 이요한 원장)에서는 지난 4년간 매년 계속 진행되던 코칭 세미나가 18명의 학생들을 등록하여 6월27-29일(월-수) 3일간 열렸다. 이번 강의는 최선희 교수와 석정문 교수를 통해 코칭을 받은 3명의 C국 강사들 3명(서군정, 정춘연, 유통)이 처음으로 코칭 강사로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들 3명은 모두 코칭 세미나를 마친 후 최선희 교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1년간 코칭을 받은 분들이다. 이들의 강의는 "자신 코칭"을 통해 (1)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2) 하나님이 주신 비전, (3) 하나님이 주신 핵심가치를 강의 했고, 최선희 교수가 (4) 핵심가치 등 전체를 모아 실습을 하였고, 석정문 교수가 (5-6)"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 작성" 및 (7)"세대를 넘는 코칭의 중요성"을 강의 하였다. 마친 후에는 일대일 코칭 파트너들끼리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순서와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제 앞으로 1년간 일대일 코칭을 받아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라 여긴다.



<그림2 > 안성 동아시아 신학원(EATS) 코칭 강의



### 3.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노회 장로회 초청 코칭 강의

지난 6월29일(목)오전 7:00부터 8:00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노회 장로회에서 석정문 목사를 초청하여 "세대를 넘는 코칭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어떻게 코칭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도 한국 뿐 아니라, 해외 선교사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나누었다. 그 후에는 코칭이란 무엇인가? 코칭은 어떻게 진행 되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친 후에 2명의 장로님들이 석정문 목사를 찾아 왔고,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관계를 맺을 뜻을 비추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참여한 분들 중 몇 분들은 지금까지 초청한 분들은 구태연한 내용들을 이야기 했지만, 석정문 목사는 새롭고 신선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평했다.



<그림3 > 2023년 6월29일(목) 한국 기독교장로회,  
북 노회 장로회 모임의 코칭

### 4. 전주지역 : 전주 온고을 제자교회(박정일 목사) 코칭 모임

7월 8일(토) 오전 10:00-오후 4:00 사이에 전주 온고을 제자교회(박정일 목사/박선순 사모)에서 전주 온고을 제자교회와 김제 제자교회(최태규 목사/김주희 사모)와 연합하여 코칭을 받는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매3개월마다) 코칭 모임을 가졌다. 오전 시간은 "세대를 넘는 코칭"으로 한국과 해외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대일 코칭 이야기와 오후에는 회원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목실기를 나누고, 서로를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1) 손웅정 코치가 아들 손흥민을 코칭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였던 것처럼 각자가 설정한 목표와 실행전략에 충실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였고,

(2)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우선권을 정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은 나중에 하는 버릇을 길러야 함을 나누었고, 그리고 (3) 지금까지 자신을 조절(self-control)하는 것이 부족하였는데 미래를 셀프 컨트롤을 열심히 하여 더 나은 코칭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림4> 전주 온고를 제자교회와 김제 제자교회 코칭 리더십 모임

## 5. 인천지역 : 인천사랑 교회(엄태윤 목사) 코칭 모임

7월 11일(화) 오전 10:00-오후 4:00 사이에 인천 사랑 침례교회(엄태윤 목사/김현자 사모)에서 인천 지역 7교회 목회자와 사모들 중 6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모여 원 데이 코칭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현재 코칭을 받고 계시는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모여 오전 시간은 "세대를 넘은 코칭"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했고, 오후에는 각자 실행 중에 있는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인천 사랑 침례교회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 2 차례의 간식이 제공되었고, 점심도 맛있게 준비해서 알찬 코칭 모임이 이루어졌다. 다음 8월 17일(목) 인천교회(김동석 목사)에서 모이기로 했다. 이 모임은 9월 16일(토), 23일(토) 2차례 의 매토요일에 걸쳐 각 교회에서 2024년 평신도 코치로 세울 아론과 홀 같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평신도 리더들을 초청하여 함께 모여 "자변 코칭"세미나를 인도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은 오전에 평신도 리더들 각각 2명씩 초청할 목사님들이 한 강의씩 맡아 강의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목실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그림5> 23. 7/11일(화) 인천 사랑 교회에서 가진 인천 코칭팀 모임

## 6. 경북지역: 하양에서 가진 경포대 팀 코칭 모임



<그림5> 23. 7/13 (목) 새하양 교회에서 모임 경포대 코칭팀

7월 13일(목) 오전 10:00-오후 4:30 사이에 경포대 코칭팀(경북 구미, 포항 그리고 대구지역)에 계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자변 코칭” 세미나를 새하양 교회(남주현 목사) 열었다. 오전 시간은 “세대별 코칭 이야기”로 남주현 목사가 현재 청년 2명을 코

칭하면서 생기는 좋은 점과 문제점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그 후에 점심 식사는 새하양 교회에서 제공을 하였으며, 오전 오후 간식도 풍부하게 제공되었다. 오후에는 각자 사역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들어 실행면서 (1)목표를 세우니 해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바로 서고, (2) 그것에 따라 사역하니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삶과 사역의 바란스를 만들수 있고, (3) 목표와 실행전략에 따라 실행하니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지를 정리하게 된다는 간증을 나누었다. 이번에는 구미 선산읍교회 김상로 목사, 포항 말씀의 샘이 Tht는 교회 김석기 목사, 대구 행복교회 이영진 목사, 새하양교회 남주현 목사 그리고 석정문 목사와 이희금 부부가 참석을 하였다.

## 7. 경북 구미지역: 목회자 대상 코칭 강의

경북 구미 지역에서는 지난 7월18일(화) 오후 3:30-5:00 구미 하늘문 교회에서 통합측 경서노회 주최 교육부 모임에서 석정문 목사를 초청하여 코칭 강의가 있었다. 이 모임은 이미 코칭을 받은 경서 노회 소속 김상로 목사님이 코칭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노회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교육임을 인식하고 노회에 요청하여 “세대를 넘은 코칭”강의가 있었다. 이 모임에 15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마친 후에는 몇가지 질문을 통해 한 개의 코칭팀을 만들어 가일부터 시작하고자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첫 모임은 8월 말째주와 9월에 걸쳐 구미 선산 코칭팀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경북과 대구에서는 2개의 코칭팀이 형성되게 된다.



<그림5> 23. 7/18 (화)

경북 경서 노회(통합측) 교육부 주최 코칭 강의



## “세대를 넘어 코칭하라”

### GO코칭연구소 제1회 목회자컨퍼런스 성황리에 마쳐



성도들의 삶을 목회자가 코치가 되어 직접 코칭하는 사역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린오션코칭연구소(석정문 대표)는 27일 ‘세대를 넘어 코칭하라’는 주제로 대전한샘교회(최홍운 목사)에서 목회자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교회와 선교지에서 일대일로 성도들을 만나 사역이 확장되는 실제 사례를 나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목회자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성도들을 줌으로 코칭하며 공백이 없이 리더들을 길러낸 경험을 나눴다.

서울 동일침례교회에서 일대일코칭을 성도리더십과 교육부 등 조직에 적용한 정헌철 목사는 코칭을 목회에 접목하면서 교회 전체가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특히 노인목회에 대한 비전을 발견한 사례를 발표했다.

정목사는 “담임목사에게 코칭을 받고 세워진 권사님들이 다시 코치가 되어 70대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활력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르신들을 코칭으로



정헌철 목사

섬길 수 있다는 비전을 발견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시대에 교회에 어르신들을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헌철 목사는 코칭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동안 쪽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코칭을 만나 건강한 성도를 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목사는 “건강한 목회자가 건강한 성도를 세우고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고 믿고 어떻게 해야 이 선순환을 이어갈까 고민할 때 코칭을 만났다”며 “제자훈련은 ‘다 뺐다’고 하는데, 코칭은 평생해도 된다. 그런 면에서 코칭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영적인 성장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 사역자를 코치로 세워 길러내고 있는 추승주 선교사는 학식이 없는 현지인들도 코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추선교사는 “현지인 피코치를 찾을 때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 자신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준으로 현지인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현지인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코치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박준영 목사





추승주 선교사

태국에서는 태국어로 번역된 코칭 세미나 교재로 5번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추 선교사는 분기별로 코칭세미나를 진행하며 잠재적 코치를 길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태국에 정착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엄마를 잃은 17세 나로쑤 자매가 일대일코칭을 하며 신학교 청강생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추선교사는 “나로쑤 자매는 공부한 적이 없고, 태국 과수원에서 온종일 일하는 처지이지만,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일대일코칭을 하며 태국어 실력이 늘어서 청강생으로 공부하고 있다”며 “지적인 수준이 낮아도, 어디에 있든 일대일코칭은 다 가능하다는 것을 나로쑤 자매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부산동성교회 박준영 목사는 담임목사로부터 시작된 2세대 민향숙 권사로부터 3세대 박수연 집사, 4세대 노현주 집사까지 세워진 교회의 일대일코칭현황을 전하며, 시작은 더디지만 확장되니 성도들 스스로 약속을 잡고 서로를 코칭하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생생한 모습을 전했다.



발제에 앞서 석정문 교수는 ‘세대를 넘어 코칭하라’는 주제로 특강을 통해 코칭의 강력한 힘에 대해 강조했다.

석교수는 “GO 코칭은 피코치의 삶이나 사역을 변화와 혁신으로 가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사역에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며 “GO 코칭은 한 사람을 변화와 혁신으로 가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적어도 5세대 이상을 코치해서 교회와 지역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40여 명이 참여해 코칭사역의 실재와 다양한 적용의 형태에 관심을 보였다. 발제 후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는 ‘수평적 관계가 실제로 가능한가’ 등 코칭의 사례 적용에 있어 고민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과 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도 있었다.

1부와 2부 전후 레크레이션과 찬양으로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어졌고,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제1회 목회자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진행으로 GO코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참석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역 현장에서 코칭을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 “코칭이 삶이 되고 삶이 코칭이 되는 꿈을 꿉니다”

태국 라후 부족 현지인과의 일대일코칭 이야기

글 : 추승주 코치

편집자주 : 제1회 GO코칭 목회자컨퍼런스에서 발제한 내용 전문을 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차 GO코칭 목회자 컨퍼런스라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현지인 일대일 코칭을 통해 현지인들의 삶과 사역에 어떠한 변화와 성장이 있었으며, 코칭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현지인 일대일 코칭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로 선교지에 귀국하지 못할 때 만난 GO코칭.

저는 2020년 건강검진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코비드 시국으로 온 세계가 혼란에 휩싸였고 하늘길이 막혀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의 10개월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내면의 실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남편인 이형국 선교사와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동료선교사의 권유로 태국 선교사 4가정이 한팀을 이루어 석정문 목사님의 코칭 강의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코칭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특별히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를 통해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 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목회자 건강진단을 통해 현재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목실기를 만들었고 1년 동안 일대일 코칭을 받았습니다.

## 현지인 사역자 세 명을 피코치로 세우다.

처음 목표와 실행전략을 만드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구슬이 있어도 그것을 실로 꿰지 않으면 그 구슬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그저 볼 일 없는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좋은 생각과 습관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쓸만한 가치 있는 구슬로 만들려면 목실기라는 실을 사용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과 아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다르기에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 오롯이 나만의 목표와 실행전략이라는 근사하고 멋진 목실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실기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며 그것이 내게 실력이 되어 10년 후, 20년 후의 나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처음 6개월은 이희금 사모님과 그다음은 석정문 목사님과 일대일 코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마치기 바로 몇 개월 전 현지인을 피코치로 세워 일대일 코칭을 시작했습니다. 코칭 강의에서 배운 대로 첫 번째 나와 깊은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았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에 변화와 성장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세 번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찾던 중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 사역자가 된 싸이파이 전도사와 어린이 센터 사역자 부부인 모라전도사, 이뿌사모 이렇게 세 사람을 피코치로 세워 일대일 코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지인 일대일 코칭을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되었고 현지인 일대일 코칭 2세대가 탄생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지인 일대일 코칭 3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저와 일대일 코칭을 2021년 8월, 10월에 각각 시작했고 2022년에 일대일 코칭 1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 사람은 코치로서 피코치를 세워 3세대 일대일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목실기를 만들 때 자신들이 지금 현재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영역에서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원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을 토대로 목실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역시 목실기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것을 하려니 어려웠고 목표를 구체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과 그것을 근거로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목실기를 만들는데 시간을 투자한 까닭은 목실기를 제대로 잘 만들어야 정확한 수치를 산출할 수 있고 매월 그 수치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며 일 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대일코칭 1년을 마치던 날, 환하게 웃던 피코치들의 모습.

이 세 사람이 일대일 코칭 일년을 마치던 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0%를 달성한 목실기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속에서

해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대일 코칭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한 목실기를 준비했고 자신의 목실기를 직접 하나 하나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일대일 코칭을 하면서 좋은 점, 유익한 점 그리고 힘들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깊이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요? 코치인 저는 피코치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조력자로서 함께 했을 뿐인데 일상의 삶과 사역적인 면에서도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시간이 갈수록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일대일 코칭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조금씩 구분할 줄 알게 되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일대일 코칭을 시작하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고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고 무엇보다 기숙사 사역(양육과 돌봄)이 힘들어 사역을 그만두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대일 코칭을 시작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되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열심과 성실함에 기쁜 마음을 더해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설교가 주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특별히 어린이 설교에 관하여 발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하며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코치가 된 현지인 사역자들이 감동과 기쁨을 누리다.

피 코치였던 이 세 사람 모두 현재 3세대 현지인 일대일 코칭을 하는 멋지고 성실한 코치가 되었습니다. 코치가 되니 피 코치였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감동과 기쁨은 피 코치가 자신들처럼 삶과 사역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과 피 코치인 이들도 머지않아 코치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10월에 처음으로 태국어로 번역된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교재를 가지고 1회 현지인 코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다섯 번째 현지인 코칭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이 모임은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현재 코치이며 앞으로 코치가 될 피 코치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강의를 듣고 또한 각자가 만든 자신의 목실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현지인 코칭 세미나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목실기 나눔을 통해 서로 좋은 인사이트를 받고 질문과 피드백을 하므로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 말에 선교지를 방문해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신 석정문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을 통해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코칭을 통해 선교지의 지경을 넓히는 꿈이 생긴다.

현지인 일대일 코칭을 통해 선교지에 지경을 넓히려는 새로운 미래의 꿈이 생겼습니다. 일대일 코칭을 통해 아주 작은 좋은 습관들을 만들고 그것이 쌓여서 가정과 사역과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이 삶에서 지속해서 일어나는 꿈. 일대일 코칭을 통해 피 코치가 코치가 되어



3세대 4세대 5세대 계속해서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뛰어넘어서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는 꿈.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전도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태국 현지인 일대일 코칭은 삼겹줄로 묶여있는 한팀이 되어 개인의 내면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어 결국은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코칭 팀이 되는 꿈. 코칭이 삶이 되고 삶이 코칭이 되는 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누군가와 만남이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 17살 엄마 잃은 여자아이가 코칭을 만나다.

나로또라는 17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나로또 가족은 미얀마에서 이주해 태국 국경 근처 빠카마을이라는 산마을에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나로또는 지난달 5월에 가슴 아픈게도 엄마를 잃었습니다. 오빠는 태국사람 소유의 과수원에서 온종일 일하며 지냅니다. 태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자기 부족어인 라후어만 합니다. 이주해와서 살고 있으니 이들 가족은 태국 시민권이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그 산마을에는 우리 라후부족 선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사역자에게 아마도 우리 선교회가 운영하는 매아이 라후 신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듯합니다. 나로또가 오빠에게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런 나로또를 오빠가 데리고 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없고 무엇보다 학력이 많이 부족한 아이라 신학교 담당 현직인 목사가 망설이는 걸 남편인 이형국 선교사가 아이가 똑똑하고 영리해 보이니 한 학기만 청강생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로쑤는 라후어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나로쑤에게 너는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열심히 라후어를 공부해서 읽고 쓰고 해야 한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나로쑤는 매일 라후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읽고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업도 제법 잘 따라갑니다. 저는 제 피 코치였던 싸이짜이전도사에게 나로쑤자매를 일대일 코칭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라후어를 쓰고 읽는 게 안되는 터라 좀 난감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기를 권유했고 싸이짜이 전도사의 결단으로 싸이짜이전도사와 나로쑤자매의 역사적인 현 지인 일대일 코칭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실기를 만들고 매달 목실기를 업데이트해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하며 개인 기도시간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둘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지적인 수준이 낮아도 배우고자 하는 열망, 변화와 성장을 간절히 원한다면 이 코칭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다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된 사례입니다.

### 코칭의 꽃, 일대일코칭으로 잠재력을 끌어낸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이란 가치는 돈으로도 숫자로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나로쑤도 언젠가 코치가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조력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싸이짜이전도사의 꿈이 되고, 그리고 나로쑤 자신의 꿈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코치는 피 코치가 방향을 잃지 않고 피 코치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도록 돕는 사람 즉 조력자일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은 오롯이 피 코치에게 달려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을 물가로 데려다줄 수는 있겠지만 그 물을 바가지든 손이든 떠서 입으로까지 갖다 줄 수도 있지만 마시는 것은 목이 마른 그 사람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칭의 꽃은 일대일 코칭이라고 할 만큼 일대일 코칭은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변화와 성장을 돕는데 유익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완벽한 목실기를 만들어 손에 들고 있더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목실기는 그저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코칭은 인생의 목적지, 그 답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여러 표시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시대는 코칭이 대세라고들 말합니다. 코칭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목회 코칭, 스포츠 코칭, 부모코칭, 경영 코칭, 재무 코칭 등등 실제로 주변에서도 코칭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코칭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룸으로 현재를 살아 마침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GO코칭이 그리고 현지인 일대일 코칭이 지경이 확장되며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일에 계속해서 쓰임 받고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대를 넘어 코칭하라!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리더를 세운다.

# PASTORS



2023

A C

of Pas





conference  
stories



# CONFERENCE



GO THRIVE COACHING







GO 코칭은 한 사람을 변화  
와 혁신으로 가게 할 뿐 아  
니라, 그 사람이 적어도 5세  
대 이상을 코치해서 교회와  
지역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게 한다.



# 제1회 목회자코칭컨퍼런스 평가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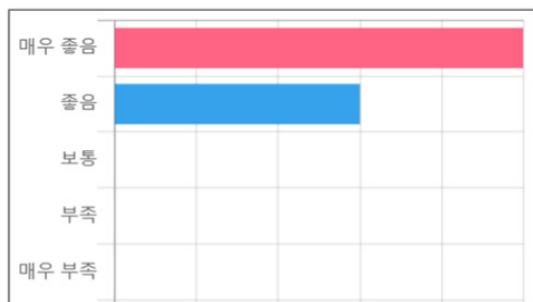
이번 컨퍼런스에는 모두 38명이 참여했습니다.

컨퍼런스 평가를 위한 설문에는 참석자 중 16명, 비참석자 6명이 응답했습니다.

컨퍼런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참석자 답변으로 평가했고, 향후 평신도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 등 비참석자들의 응답이 가능한 설문에 대해서는 모두 취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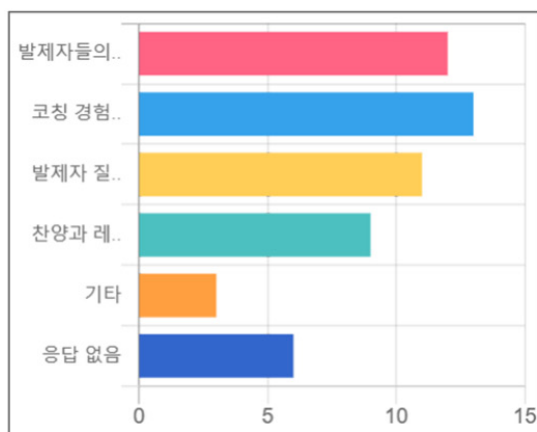
1. 전반적인 진행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좋음 62.5%, 좋음 37.5% 로, 전체적으로 진행해 만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매우 좋음	10	43.5%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좋음	6	26.1%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보통	0	0%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부족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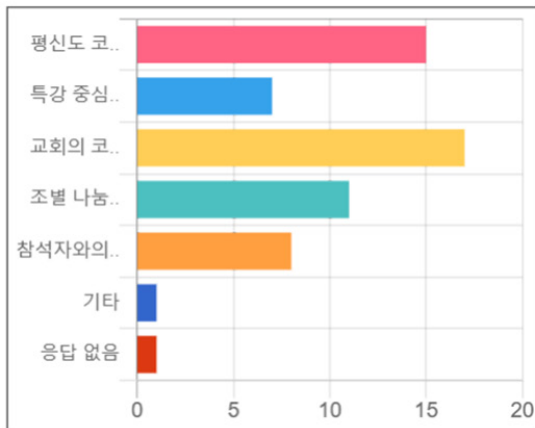
2. 석정문 교수 특강 및 기타 발제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매우 좋음 60.9%, 좋음 39.1%로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3. 다음 컨퍼런스에서 기대되는 순서로는 코칭 경험 나눔(24.1%), 발제자들의 발표(22.2%), 발제자 질의응답(2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정현철 목사, 추승주 선교사, 박준영 목사)	12	22.2%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코칭 경험 나눔(오후)	13	24.1%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발제자 질의 응답(오후)	11	20.4%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찬양과 레크레이션	9	16.7%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기타	3	5.6%

4. 제2회 목회자코칭컨퍼런스에 기대하는 내용은 교회의 코칭 적용 사례 발표[28.3%], 평신도 코치 및 피코치 간증 및 사례발표[25%], 조별 나눔 시간과 정보 교류[11%] 등으로 나타나 실제 교회의 활용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중복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비율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코치 및 피코치의 간증 및 사례 발표	15	25%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특강 중심의 컨퍼런스	7	11.7%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교회의 코칭 적용 사례 발표	17	28.3%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조별 나눔 시간과 정보 교류	11	18.3%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참석자와의 교제 및 격려, 축복의 시간	8	13.3%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기타	1	1.7%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응답 없음	1	1.7%

5. 향후 목회자 코칭 컨퍼런스의 발전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제안과 관련해서는 깊은 대화와 교제를 위한 조별 나눔(코칭 세대별 나눔 등)을 말씀하신 분이 3건, 풍성한 진행을 위해 1박 2일 또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제안이 2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별 코칭 결과를 책자로 배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GO** 코칭  
coaching  
평신도 컨퍼런스

**세대를 넘어  
코칭하라**  
(딤후 2:2)

일시 : 2023. 10. 9(월) 오전 10시  
장소 : 세종하나교회(위남환 목사)  
세종시 집현서2로 8(집현동 785-25)



## 선교사역을 재생산으로 이끄는 코칭... 리더를 길러낸다

- 말레이시아 정희찬 선교사 인터뷰

코칭세미나 이후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과 목회  
(사역)적 변화와 성장에 대하여

### 1)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은 어떤 것이었나요?

코칭 세미나 이전에도 도전적이고 힘든 환경에서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코칭 이후의 삶은 환경을 이해하고 주의 뜻에 따라 환경을 대처하며 심지어 환경을 초월하여 주의 사역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배우는 태도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목표 성취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 2) 목회(사역)적인 변화와 성장

(코칭으로 목회에 도움이 된 점 등)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코칭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듯이 코칭을 목회사역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회 사역이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역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1. 마인즈힐링교회를 현지 목회자에게 이양한 정희찬 선교사 부부



그렇게 할 때 매주마다 같은 예배이지만 분명한 목표를 갖고 변화를 추구하며 새롭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칭은 교회 목회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모든 사역이 목표를 갖고 진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코칭은 단순한 교회 사역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교회 사역이 지속되게 합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수영로교회와 수원제일

#### Q. 코칭을 현지 사역에 어떻게 접목하셨나요?

교회에서 목회를 경험하며 배웠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마인즈힐링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역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5월 방콕에서 제1차 동남아시아 코칭 세미나가 석정문 대표님이 주최하여 진행될 때 말레이시아 대표로 제가 초청을 받아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코칭에 대한 이해와 시대적 필요성, 그리고 사역의 적용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고, 석대표님이 진행하는 코칭 세미나(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수차례 참석하면서 배우고 강의하면서 코칭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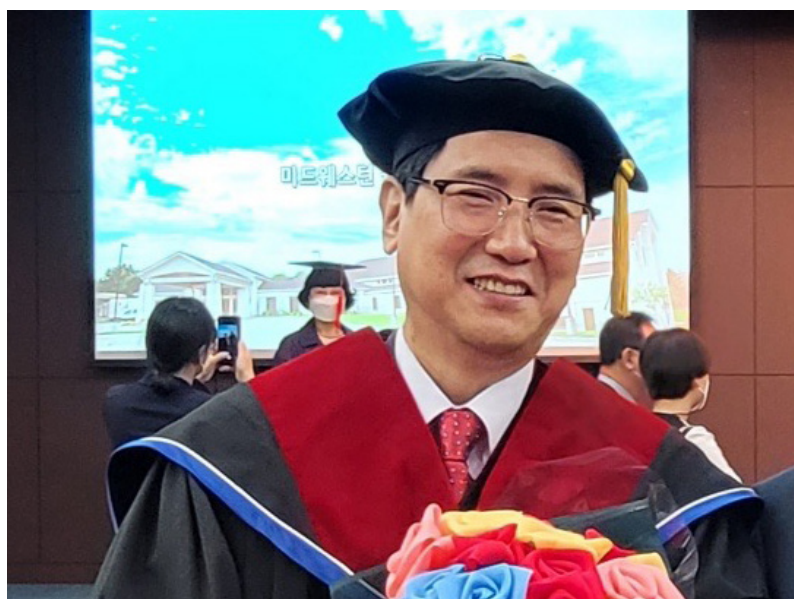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는 마인즈힐링교회에서 석대표님이 몇 차례 특강과 세션세미나 2회(말레이어 통역과 영어)를 해 주셨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코칭을 이해하고 삶과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교회 목표를 정하고, 실행전략을 세우기 위해 토의하며 스스로 현지 지도자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였고, 일대일 코칭을 접목하기 위해 교회 전체적으로 일대일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Q. 코칭을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한다면, 영향력이나 효과(개인의 영적, 육적 성장의 면에서)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선교의 과정을 주로 4P(Pioneer, Parent, Partner, Participant)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어느 과정에 있는 지를 파악하고, 선교의 최종 목적이 선교사에서부터 현지인으로 리더십 전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리더십 이양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선교 사역에 코칭을 적용하게 되면 선교사가 현지인을 존중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현지인 스스로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계발하여 효과적으로 리더십 이양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코칭은 선교사역이 단회적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적으로 이어져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 Q. 마인즈힐링교회 목회 이양 후 코칭 사역을 어떻게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코로나(Covid19)로 인하여 교회의 담임목회자를 현지 목회자에게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지 목회자가 어려운 기간 동안 마인즈 힐링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마인즈 힐링교회 목회자들을 코칭하며 소수의 한인 선교사들을 코칭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지 목회자를 코칭하고, 선교사를 코칭하는 사역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코칭을 접목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모델 교회가 되어 코칭이 말레이시아

**Q. 앞으로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서 코칭을 어떤 방향으로 접목해 나갈 계획인지,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교회에도 잘 접목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때에 선교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거의 40년을 선교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은 제 선교 사역에 코칭을 접목하고, 나아가 현지인과 선교사들에게 코칭을 나누고 접목하도록 돕기를 기대합니다.

**Q. 10월에 열리는 말레이시아 자변 세미나 코칭 일정과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2023년 10월 말레이시아에 열방코칭 이사들 모임을 진행되는 동안 10월 13-15일(금-주일) 동안 마인즈 힐링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자변코칭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로는 석대표님과 여러 이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Q. 말레이시아 자변 세미나 코칭 이후 기대하는 점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 때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여 코칭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코칭을 충분히 삶과 사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목실기를 만들어 일대일코칭으로 이어져 1년 동안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5세대까지 온 성도에게 코칭이 그들의 삶에 적용하여 개인의 성장으로 인하여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져 선교 사역의 확장이 이루어지





# “일꾼 바로 세우니 교회도 자립 ... 큰 기쁨”

말레이시아 마인즈힐링교회 설립자 정희찬 선교사



그림3. 마인즈힐링교회 성도들이 코칭세미나 수료증을 받고 다같이 촬영한 모습

국민일보 2023년 7월 27일자에 실린 정희찬 선교사님 기사입니다. - 편집자주

말레이시아에서 23년을 사역한 정희찬 선교사(수원제일교회 파송)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상황이 되자 개척 후 17년을 목회한 마인즈힐링교회(Mines healing church)를 현지인 목회자에게 이양했다. 마인즈힐링교회는 서말레이시아 마인즈 지역에서 100여 명이 모인다. 이들은 매년 2번 씩 말레이시아 원주민 지역을 방문하거나 인도네시아 등 인근 나라에 선교팀이 파송될 정도로 선교마인드가 투철한 자립 교회다. 6일 현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운 정희찬, 박해경 선교사가 머무르고 있는 부산 영도구 행복한교회를 찾았다.

정희찬 선교사 부부는 1985년 부산 외항선교회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에 입문했다. 선교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 해 본 일이 없다’고 고백하며 웃는다.

정 선교사는 “제 인생은 선교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며 “말레이시아에서도 태권도 사역부터 시작해 한국어 강의, 침술 사역, 교회개척과 목회사역, 코칭사역 등 다양한 선교를 시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다. 한마디로 선교를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고백했다.

정 선교사 부부는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현지인 대학생 청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교회 개척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희찬 선교사 부부가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을 20여 년 전만해도 한국 선교사가 도시 안에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는 “담임목사가 없는 현지인 교회에서 5년 간 함께 생활하고 설교하면서 현지인들을 경험하고 보니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존 교회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현실도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였다”고 회상했다.

2006년 건물을 임대하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함께 생활하던 공동체에서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6개월 동안 성도 한 명 없이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다.

정 선교사는 “교회 인근 간호 전문대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중 신앙이 있던 친구들이 교회에 오고 이들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했다”며 “이때 초창기 멤버들이 성숙하고 성장해 지금까지 교회에서 핵심 리더로 사역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산이 있었던 지역에 부유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정희찬 선교사는 이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갖추도록 목회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제자 훈련 교재들을 찾아 말레이어로 번역해 성도들을 훈련 시켰다.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선교지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 즉 교육과 전도, 선교를 핵심에 두었다”며 “선교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사역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2. 지난 6월 마인즈힐링교회는 코로나 이후 3년 여 만에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말레이시아 추수감사 예배는 종족별로 자신의 전통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물을 교환하는 대대적인 행사다.



그림5. 2016.5월에 방콕에서 열린 제1회 동남아시아 코칭 세미나

마인즈힐링교회는 후원교회의 도움없이 운영되는 자립교회로 매년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 프로그램이 정착된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나라에도 두 차례 방문해 고려대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기도 했다. 선교가 교회의 핵심 정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선교에 나선다. 그는 “매년마다 선교하기 위해 직장을 다닌다는 성도도 있었다”며 “반대로 어떤 성도는 선교가 너무 힘들다고 다른 교회로 갔었는데, 얼마 후에 ‘선교를 안 하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며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면서 웃었다.

마인즈힐링교회는 17년 동안 현지인 목사 3명, 전도사 4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정 선교사 부부가 공식적으로 현지인 담임목회자에게 목회를 이양한 후에, 교회를 담당하는 전임사역자 한 명, 파트 사역자 4명이 사역하고 있다.

박해경 선교사는 “교회를 세울 때부터 우리가 떠나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현지인 전도사와 집사들의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다”며 “처음에는 힘들어 하던 사역자들이 몇 년 뒤 목회자가 되어서 ‘훈련 시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말했다.

애써 세운 교회를 현지 목회자에게 이양했지만 정희찬 선교사 부부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 교회의 설립자로 남아 교회의 해외 선교 사역을 도와야 하고, 정 선교사를 찾는 다른 지역을 찾아 다니며 선교사 후원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니어 선교사로서 정희찬 선교사는 GMS 동남아이슬람 지역선교부 지역대표, KWMF(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동남아 지역대표도 맡고 있다. 한 지역의 선교사를 넘어 전 세계 선교 지형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동남아시아 선교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한국교회가 전략적으로 선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가 선교 역량을 가진 현지 교회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이루어 세계 선교를 확장해 가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교회 안에는 아직도 현지에서 세워진 교회를 동등한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현지 교회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함께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교회에서 현재 파송된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55세이고, 현지에서 40대 선교사를 찾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세계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부흥 폭발하는 교회의 생생한 전도 이야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글쓴이 : 인천 사랑침례교회 엄태운 목사



저자 손현보 | 누가 출판 | 2010

페이지수 248

“

부흥으로 폭발하는 생생한 전도 이야기다. 나는 이 책을 몇 번 읽으면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 졌다를 반복했다. 손현보 목사님은 어촌 교회에 부임해서 20~30명의 성도들과 함께 복음전파에 전력을 다하여 지금은 2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

## 1.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모든 바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배가 방향을 정해놓지도 않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한다면 아무리 바쁘게 움직일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것이 헛되게 될 것이다.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손 목사님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 받으리라 확신하며, 오늘도 전도에 대한 목표를 낮추지 않고 전념하고 있다.



## 2. 분명한 꿈을 키워나가라.

꿈을 꾸더라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친다.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저자는 들리는 말이나 보이는 현실보다 더욱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다. 꿈을 키워나가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꿈에 경계선을 긋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지금의 시대는 전도가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 3. 두 가지 질문을 하라.

첫째는 “왜 안 될까?”이다.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까?” “왜 구역이 자라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둘째는 “그럼 어떻게 해볼까?”이다. 그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았다. 구역이 잘 안 모이고 성장이 되지 않았을 때 이유를 물어보니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예배가 가장 재미없다고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겠느냐고 물어보니, 먹고 교제하는 것은 재미있다고 했다. 그래서 구역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일단 먹고 교제만 하라고 했다. 얼마 동안은 좋았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마다 먹고만 헤어지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간증을 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구역은 기적처럼 성장이 되었다.

## 4. 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실천하라.

간에 0%로 떨어진다. 안 된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자 움직일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최소한 1%는 된다.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해 보자는데 전심전력하면 초기 배가 성장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부정적인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이나 환경도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목표를 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 5. 확실하게 딱 달라붙어서 전도하면 전도는 된다.

생짜배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고 그들이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복음을 어중간하게 전하면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하게 딱 달라붙어서 전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아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안 가면 안 되는가 보다.” “안 가면 큰일 나는가 보다.” “갈 바엔 혼자 가기 서먹하니 누구라도 데리고 가야 하겠다.”

## 6.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는가? 담임 목사를 거꾸러뜨리는 것, 담임목사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 그것만 성공하면 교회는 반드시 무기력화된다.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 목사님! 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다 하십시오. 전 교인들이 목사님을 가족처럼 생각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한다.

## 결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책을 읽고 손현보 목사님과 나를 대조할 때 극과 극이라는 결론이 난다. 이유를 나는 본서에서 찾았다. 본질과 목적에 집중하는 저자는 늘 향상과 성과만을 얻어내고 늘 견고하고 든든하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 찬양, 봉사, 기도, 모두 있어야 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의 세워진 목적은 전도라고 강조한다.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전도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전도는 된다. 아멘^^

## 2023년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의

#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

(1-6월, 1/2분기) 54.90% 달성

### I. GO THRIVE COACHING의 존재 목적/사명(Mission)

**“코칭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성령의 도움으로).”**

**“Making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life of people through the coaching leadership”  
(by the help of Holy Spirit)”**

**\* 설명1**

“성령의 도움으로(by the help of Holy Spirit)” 사람을 코칭하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설명2**

“사명(mission)”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맡겨 주신 일”(행 20:24, 출 4:8-12)

### II. GO THRIVE COACHING 2030년의 비전

#### 1. “3R/5G 시대를 열어 1,600개의 코칭 파트너를 세운다.”

**\* 설명3**

“코칭으로”: 사람들과 소통(경청, 질문 그리고 피드백)으로 잠재력(potential gift)을 끌어내어(잠언 20:5) 하나님 일꾼으로 세움

**\* 설명4**

“3R”: 기관이나 조직의 리더들을 갱신(Renew), 부흥(Revive) 그리고 지역 변화를 새롭게 변화(Refresh)시키는 사역을 의미(롬 12:2)

**\* 설명5**

“5G”: 5G는 1세대 코칭으로 끝나지 않고, 1세대가 2세대, 2세대가 3세대, 3세대가 4세대 그리고 4세대가 5세대(Generation)를 코칭을 하여, 5세대가 함께 연결이 되고, 팀워크를 이루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딤후2:2, 전4:9-12)

**\* 설명6**

“1,600명의 코칭 파트너”: 2030년까지 일대일 코칭을 통해 1,600명(\*)의 코칭 리더십의 파트너가 됨

**\* 설명7**

비전은 (1) “호르마”(헬라어)이며,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눈”, 또는 “현재와 미래에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 즉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 실체의 작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일반적으로는 “매력적이며, 도전적이며, 미래 성취 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말함)

#### 2. 2030년까지 1,600명의 코칭 파트너 세우기

- 1) 2021-22년: 100명의 코치를 한국, 미국 그리고 기타 국가에 세우고,
- 2) 2023-24년: 100명의 코치들이 각각 2명씩 코칭하고 200개의 코칭 리더십 파트너를 세우고,
- 3) 2025-26년: 200명의 코치들이 각각 2명씩 코칭하고 400개의 코칭 리더십 파트너를 세우고,
- 4) 2027-28년: 400명의 코치들이 각각 2명씩 코칭하고 800개의 코칭 리더십 파트너를 세우고, 그리고
- 5) 2029-30년: 800명의 코치들이 각각 2명씩 코칭하여 1,600개의 코칭 리더십 파트너를 세운다.

### 2021-2022년(1차년) 비전 성취 성취 차트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	합계
1. 한국 일대일 코칭	38명	56명	17명		111명
2. 열방 일대일 코칭	33명	25명	5명		63명
세대별 일대일코칭 합계	71명	81명	22명		174명
세대별 전체 종합	181명				

### 2023년(2차년/전반기) 비전 성취 차트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	합계
1. 한국 일대일 코칭	42명	75명	36명	2명	155명
2. 열방 일대일 코칭	33명	32명	19명	1명	85명
세대별 일대일코칭 합계	75명	107명	55명	3명	240명
세대별 전체 종합	240명을 300명으로 나누면 6월 30일 현재 80% 달성				

## III. 핵심 가치에 따른 목표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GO Thrive Coaching)는 아래와 같이 5개의 핵심가치를 기초해서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워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코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 설명8

“핵심가치”란 기관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또한 그 기관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영구히 변화되지 않는 성경적 믿음이나 신념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한 기관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는 4-7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가치1. 성장(Growth) = 자료 개발(Resource Development)

**코칭과 관련된 가치 있는 자료(Valuable Materials)들을 찾고, 평가하고, 연구하고, 출판하여 회원들의 역량과 리더십 개발을 돕는다.(에스라 7:10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 목표 1 : 코치들의 역량과 리더십의 성장을 위해 10가지의 자료를 개발하고 연구한다.

1-1 : 코치과 관련된 코칭 세미나 교재(3권)를 개발한다.

1-2 : 코칭과 관련된 책을 읽고 10편의 소감을 쓴다.

1-3 : GO 코칭 뉴스 레터를 6회 발행한다.

1-4 : 코칭 컨퍼런스를 위해 목실기를 모아 3권의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출판한다.



1-6월의 결과: 목표1: 65.5%+ 목표2: 60%+목표3: 50%+목표4:66.6% 달성하여 합은 242.1%이며, 4로 나누면 평균 60.53% 달성



## 가치2: 탁월(Excellency) = 코치 훈련(Leader Training) (목회자/선교사/사모 코칭)

코치들의 질(Quality)적 성장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여 탁월한 코치가 되게 한다.  
(이사야 5:2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좋은 포도 맺기를..)

### 목표 2: 코치의 역량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

2-1 : 7명의 목회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서울/경기 중심)을 한다.

2-2 : 2차 목회자 8명 모집과 훈련(부산/경남 중심)

2-3 : 코치의 역량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 15명의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을 한다.

1차 선교사 모집과 훈련(인도네시아, 폰티아낙, 태국, 치앙마이, 메아이 지역)

2-4 : 2차 선교사 모집과 훈련( 네팔, 카트만두)

2-5 : 코치들의 역량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 20개팀(100일을 코칭)에게 코칭 세미나를 제공한다.



목표 2의 결과 종합: 목표2-1은 43%, 목표 2-2는 0%, 2-3는 127% 목표 2-4는 0%  
그리고 목표 2-5는 64%로 이를 합하면 234%, 이를 5로 나누면 46.8% 달성

## 가치3: 재생산(Reproduction) = 코칭 사역(Coaching Ministry) (평신도 리더/현지인 포함)

코칭 받는 코치들이 개별코칭(=맞춤형)과 팀 코칭을 받아 역량과 리더십이 개발되어 5세대에 걸쳐 재생산 사역이 이루어지게 한다.

(살전 1: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2:7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 )

### 목표 3 : 코칭 사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3-1 : 한국의 교회나 기관 목회자와 평신도들 190명을 대상으로 1:1 코칭을 한다.

3-2 : 해외에서는 선교사 그리고 현지인들 1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코칭을 한다.



1-6월 목표3의 결과: 3-1이 81.6% 3-2가 77.3%의 합은 158.9이며,  
이를 2로 나누면 79.5% 달성함

## 가치4: 극대(Maximum) = 성과 경영(Performance Management)

싱크 와이즈(Think Wise), 온라인 컨퍼런스(On line Conference) 및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을 통해 코칭 성과(영적 열매)를 극대화한다.( 마 7:17-20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 목표 4 : 코칭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4-1 : 100개의 GO 건강진단 보고서를 작성한다.(담당: 박상준, 김성원, 이동희)

4-2 : 한국 코칭 축제 컨퍼런스(1,2차 합)에 50명의 코치들이 참석하고,  
목실기 책자를 발행한다.(담당:정헌철, 박준영, 이동희, 유찬영, 석정문)

4-3 : 코칭 세미나를 마친 분들에게 수료증(자격증 포함)하여 100명에게 전달한다.

4-4 : 25명의 이사진을 만들고 월 250만원의 수입을 조달한다.

4-5. 개교회의 후원과 지원으로 코칭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988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다.

☒ 1-6월 목표4의 결과: 4-1: 35% 4-2: 76% 4-3: 30%, 4-4: 72%, 4-5: 46.25%의 합은 259.25%, 이를 5으로 나누면 51.85% 달성함

### 가치5: 협력(Cooperation) = 지역사회(Community Networks)

코칭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제자, 코치, 소그룹을 재생산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맺어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요15:8,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딤후 2:2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 목표 5 : 주위 다른 코칭하는 기관이나 조직과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5-1 : 전문 코치가 될 4사람을 선정해서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4,800을 보낸다.

5-2 : 다음 세대 코치(Next Generation coach)들을 세우기 위해 <코칭 모델 과정>으로 30명의 목회자/ 선교사(일인당:100만원)를 선정해서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불한다.

5-3 : 매년 건강한 코치상(목회자, 선교사 및 평신도 리더)을 만들어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전달한다.

5-4 : 선교사들이 코칭하는 현지인 20명(일인당 \$50/5만원/100만원)에게 코칭장학금을 제공한다.

☒ 목표5의 결과:5-1: 50%+5-2: 73.3%+5-3: 0%+5-4:20%의 합은 143.3% 4로 나누면 35.8% 달성

목표/ 성취	1-3월	4-6월	7-9월	10-12월	설명
목표1: 성장/자료개발	20.0%	60.53%			2017년 88.3% 2018년 82.2% 2019년 80.9% 2020년 71% 2021년 96.2% 2022년 115.3%
목표2: 탁월/코치훈련	9.5%	46.8%			
목표3: 건강/코칭사역	62.2%	79.5%			
목표4: 극대/성과경영	13.2%	51.85%			
목표5: 연결/지역사회	6.3%	35.8%			
1-5 종합	111.2%	274.48%			
1-5의 종합 평균	22.24%	54.90%			

GOCOACHING 평신도 컨퍼런스

# 세대를 넘어 코칭하라



**날짜**

2023. 10. 9(월)

**시간**

오전 10시

**장소**

세종하나교회 (위남환 목사)  
세종시 집현서2로 8 (집현동 785-25)